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88호 1판 (음력 8월 20일)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이용객 100만명 급증 '반나절 생활권'

호남선 KTX 개통 6개월

㉠ 교통지형 대변화

전라선 포함 하루 2만명 이용
항공 44%↓·고속버스 21%↓
빅데이터 분석 대책 세워야

호남선 KTX개통 6개월을 맞는 1일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KTX 개통으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이 자리를 잡았으며, 철도·버스·항공 등 교통 지형에도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6개월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만명 이상 늘었다. 지난 4월 1일 개통 이후 예상보다 더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교통 지형의 변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지각변동 역시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동 인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이후 영향, 대책 수립, 실천 평가 등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개통 이후 광주·전남을 찾는 승객보다 서울 등 외지로 나가는 승객이 하루 평균 280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파악돼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전라선 이용객 110만명 급증= 1일 코레일에 따르면 호남선 충북오송~광주송정 구간이 고속철도화된 4월 2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호남·전라선 이용객은 353만3940명으로, 일반선로를 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3만7507명에 비해 109만6433명(44.9%)이 증가했다.

호남선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이용객은 268만1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7만5174명)보다 80만6372명, 그리고 전라선 이용객도 85만23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만2333명) 보다 29만61명이 각각 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광주·전남을 찾는 이용객보다 KTX를 타고 서울 등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하루 평균 280여명 더 많다는 점이다. 개통 6개월간 하루평균 호남선 승차객은 7468명, 하차객은 7266명, 전라선의 경우 승차객은 2380명, 하차객은 2304명으로 집계됐지만, 승객들의 KTX 이용 목적, 소비 패턴 등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4월 송정역사에 대한 만족도, 열차 이용정보, 편의시설 등을 설문조사한 사례는 있지만, 이용객에 대한 분석은 광주시와 광주발전연구원 모두 현재 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 '뜨고' 항공 '지고'…교통 지형 대변화= 광주에서 서울을 1시간 30분 만에 주파하는 KTX의 위력은 교통 지형의 대변화를 몰고 왔다. 당장, 빠른 속도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는 KTX 앞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6개월간 광주~김포 공항 간 탑승객은 13만6548명(운항횟수 974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288명(2516편)에 비해 무려 44%나 급감했다. 160석 안팎의 비행기 좌석에 사실상 30~50명만 탑승해 광주와 김포공항을 오가는 형편으로, 항공사로서는 기회만 되면 운항 편수를 줄이려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실제 KTX 개통 이후 아시아나항공 측은 왕복기준 운항횟수를 하루 6편 줄여 현재 광주~김포 간 운항횟수는 10편(아시아나 6편, 대한항공 4편)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여수~김포 공항 노선 탑승객도 20만451명에서 15만301명으로 감소하고, 운항횟수도 2727편에서 2278편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광주·여수공항 모두 KTX의 위세에 눌린 모습이다.

고속버스도 이용객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KTX개통 이후 5개월간 광주~서울(금호고속) 간 이용객은 46만78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만9449명보다 20.6%(12만1638명) 줄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KTX가 국토를 잇는 대동맥이라면 버스는 대동맥(서울~광주)과 모세혈관(광주~해남 등)의 기능을 두루 갖춘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남 의석 5개 날아갈 위기 눈 감고 두 손 놓은 새정치

비례대표 지키기에 '무대책' … 획정위, 오늘 지역구 수 확정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호남 국회의원 의석수가 최대 4~5석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도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유지를 명분으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는 2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를 확정한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획정위가 범위를 정했던 지역구수 244~249개의 6개안 가운데 내부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결정한 지역 선거구 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획정위의 안 대로 지역구가 확정된다면 호남은 최소 3석에서 많게는 5석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 1석, 전남 2석, 전북 2석 정도가 줄어들면서 20대 국회에서 호남 의석수는 25석으로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 정치권의 위기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수까지 줄어든다면 호남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반면, 영남은 획정위의 안대로 한다면 5석 내외 정도가 감소할 전망이지만 현재 의석수가 65석이라는 점에서 60석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호남 의석 수 감소에 대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비례대표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은 획정위의 선거구 수 발표에 앞서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의 '2+2 회담'을 갖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김무성-문재인 대표 회동에서 발표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청와대가 나서 비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관련 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일 획정위의 지역 선거구 수 발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호남의 의석수 감소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 결집된 힘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과 전북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2일 오후 문재인 대표를 면담하고 농촌 지역구 대표성 확대와 호남 의석수 감소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구가 1석이 줄게 될 가능성이 높은 광주 국회의원들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혜자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 조정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광주 국회의원들과 모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흥 공공기관 구역 불합리 ▶12면

新 8도유람-녹색미래 담양 ▶18면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막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랴!
■ 일시 : 2015. 10. 11(일) 09:3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수능 영어 '절대평가'…現 고1부터 90점 이상이면 1등급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정시모집 | 062)605-1114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응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된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는 1일 영어 절대평가 세부 도입 방안을 담은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뒤 이날 기본 계획에서 9등급제와 등급 산출 방식을 확정해 내놓았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시험체제는 2017학년도와 같다.

9등급제 절대평가 방식은 원점수 100점 만점에 1등급은 100~90점, 2등급은 89~80점으로 10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진다. 현행처럼 문항 수는 45개이고 1개 문항당 배점을 2점이나 3점으로 한다면 4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변별력이 떨어진 영어 대신, 수학·과학·국어 등의 사교육이 늘어나고 수도권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 강화로 학생들이 교과 외 활동까지 신경쓰게 돼 부담은 오히려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